

남한 지역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무덤과 몸의 가분성(dividuality)

우정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부교수, 무덤 고고학 전공

myjywoo@aks.ac.kr

-
- I. 들어가며
 - II. 무덤과 몸: 개인성을 넘어서
 - III. 남한 지역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무덤과 몸
 - IV. 화장과 몸의 가분성
 - V. 나가며
-

I . 들어가며

남한 지역에서 의도적인 매장 시설물로서의 무덤은 신석기시대에서부터 확인되고 청동기시대에는 그 규모와 수량이 급격히 증가한다. 2010년대 이후에는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무덤 출토 인골자료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결과와 관련 물질문화에 대한 해석을 종합하여 당시의 사람과 사회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사회적 위계 또는 정체성에서 출발하는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는 남한지역 신석기 시대-청동기시대 무덤과 몸 처리 방식의 다양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선사시대 무덤과 몸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에 화장이나 매장 행위 자체뿐만이 아니라 화장이나 매장 전후의 시신 처리 방식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진 유럽과 고학의 연구 성과를 참조할 것이다.¹ 이를 통해 현대적인 형태의 불-가분적 인(in-dividual) 개인 개념이 시공간을 초월해 과거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상정하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밝힌다. 다음 개인이 놓인 사회적 위계나 개인이 지닌 정체성에서 시작하는 기존의 접근방식 대신 가분적이고(dividual) 관계적인(relational) 존재로서의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남한지역 선사시대 사람의 가분성(dividuality)을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초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AKSR2022-C13).

1 좁은 의미에서 '화장'은 '시신을 불로 태우기', '매장'은 '시신을 땅에 묻기'를 의미하는데, 양자는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복합적인 시신 처리 과정의 일부를 이룰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IV장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겠다.

II. 무덤과 몸: 개인성을 넘어서

2010년대 이전 남한 지역 신석기시대 무덤에 대한 연구는 무덤의 지역적 분포, 입지, 구조와 형태, 출토품 등의 특성 및 편년, 그를 통해 본 당시의 신앙과 의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² 이후 인골의 자연과학적 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피장자의 성별과 연령 및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 등을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³ 청동기시대 무덤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도 1990년대 이전까지는 무덤의 지역적 분포, 입지, 구조와 형태, 형식 분류, 출토품 등에 기반한 편년과 계통 및 그와 관련된 신앙이나 의례가 주로 논의되었다.⁴ 1990년대 이후 기존의 주거지 단위의 조사에서 벗어나 취락 단위의 전면 발굴이 널리 이루어졌고, 그 성과가 축적되는 가운데 2000년대 이후 취락구조 및 취락 간 위계 연구의 일부로서 무덤과 피장자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연구가 크게 증가했다.⁵ 그러나 신석기시대 무덤 연구 경향에서와 마찬가지로 청동기시대 인골자료의 형질적 분석 결과를 당시의 물질문화와 종합해 관련 사회문화에 대해 보다 실증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역시 2010년대 이후에 들어서이다.⁶

2 이상균, 「한반도 신석기인의 묘제와 사후세계관」, 『고문화』 56(2000); 임학종, 「신석기시대의 무덤」, 『한국신석기연구』 15(2008).

3 김범철, 「가덕도(장향)유적의 사회적 생물고고학: 신석기시대 매장관행에 대한 통합적 이해 시론」, 『한국신석기연구』 34(2017); 김주희, 「신석기시대 출토 인골로 보는 사회상」, 『한국신석기연구』 37(2019); 임상택, 「무덤으로 본 신석기시대 어로 민의 해양경관 구축」, 『고고학지』 25(2019).

4 김병모, 「한국 거석문화 원류에 관한 연구 I」, 『한국고고학보』 10-11(1981); 김정희, 「동북아시아 지석묘의 연구」, 『충실사학』 5(1988).

5 대표적인 예로 배진성, 『무문토기문화의 성립과 계층사회』(서울: 서경문화사, 2007); 이형원,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와 사회조직』(서울: 서경문화사, 2009) 등이 있다.

6 신석원, 「인골로 본 청동기시대 장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5); 하대룡,

위와 같은 기존 연구를 통해 거시적 수준에서 보이는 무덤의 형식학적 특징과 시공간적 분포 양상, 그와 관련된 지역성 및 주변 지역과의 교류 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사회적 함의에 대한 논의에서 무덤은 무덤 축조에 드는 노동력의 차이나 부장품의 질과 양, 희소성을 기준으로 비교되고, 그 결과 관찰되는 차이는 당시의 사회적 범주, 역할, 지위, 또는 계층에 있어서의 문화 또는 차별화로 곧바로 연결되었다. 무덤 출토 인골자료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 결과를 물질문화적 맥락과 종합하여 당시의 사람과 사회를 실증적으로 설명하려는 최근의 시도 자체는 분명 고무적이다. 그러나 무덤과 피장자를 당시 사회의 수동적이고 정태적이며 총체적인 반영물로 간주하는 경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현대적인 형태의 개인성 그리고 그에 기반한 규범과 가치를 통해 과거의 사람과 그들의 문화를 보려는 시각이 기존 연구 경향에 깊이 배태되어 있다.

그러나 죽은 이의 몸을 어떻게 처리할지,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다룰 것인지, 화장을 한다면 언제 어디서 하고 그 잔존물을 어떻게 할지, 매장을 한다면 어디에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구조와 형태의 무덤을 만들지, 사망 후 어느 시점에 죽은 이를 묻을지, 그때 어떠한 자세로 시신을 안치할지, 부장품으로는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넣을지 등에 대한 결정, 그러한 과정에서 주어진 선택의 폭, 그리고 그러한 결정의 주체와 방식은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 가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결정 과정을 거치는 동안 죽은 이의 몸에는 새로운 정체성과 의미가 부여되므로 무덤과 피장자의 몸을 통해 표상된 범주나 이미지는 피장자가 생전 지녔던 정체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골 분석을 통한 장례 방식의 검토』, 『제3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발표문』 (2012).

행위자 간의 협상을 거쳐 전략적 또는 관습적으로 선택되고 가공되어 변형된 것이다.

우정연이 논한 것처럼, 개별적인 몸을 통해 구분되는 개개인은 신체적인 차이에서부터 욕망과 역량에 있어서의 차이에 이르기까지 각자 나름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⁷ 이를 개인성이라 정의할 때 개인성은 누구에게나 존재하지만 그러한 개인성에 부여되는 가치는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⁸ 현대사회에서와 같은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강조는 19세기 이후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인류사에서 아주 최근의 일이다.⁹ 즉 서구의 근현대 정치사회적 사고에서 사회 또는 국가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의 천부적인 권리를 갖는 독립적인 개인이 모여 서로의 합의하에 구성해 나가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그에 비해 전근대사회 특히 고고학자가 주로 다루는 친족 기반의 전통사회에서는 집단이 먼저 존재하고 개개인에게는 그러한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구성원으로서의 자리가 주어진다. 근현대 계약국가에서 개인의 죽음은 사회계약의 주체인 또 다른 개인이 생물학적으로 재생산되는 한 사회적 재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전통사회에는 죽은 이가 생전에 지녔던 권리, 위신, 의무, 채무와 같은 사회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죽은 이의 성별, 연령, 친인척 관계 등에 따라 증감하는 형이상학적 기운을 비롯하여 한 개인의 죽음으로 인해 집단에 야기된 변화를 조정하는 것이 집단 재생산에 필수적이라는

7 우정연,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무덤을 통해 본 개인성과 집단성」, 『한국학』 37(4)(2014b), 344~345쪽.

8 C. Fowler, *The Archaeology of Personhood: An Anthropological Approach* (London: Routledge, 2004); B. Morris, *Anthropology of the Self: the Individual in Cultural Perspective* (London: Pluto Press, 1994).

9 I. Hodder, *Archaeology beyond Dialogue*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2003), p. 7; B. Morris, *Western Conceptions of the Individual* (Oxford: Berg, 1991); J. Thomas, *Archaeology and Modernity* (New York: Routledge, 2004), pp. 139-140.

믿음이 널리 존재한다.¹⁰ 따라서 남한 지역 선사시대 무덤 축조에는 근현대 사회에서와 달리 피장자의 사회적 계층이나 개인적 정체성이라는 변수 외에도 특정 집단의 우주론, 세계관, 사후관, 인간관 등이 복합적으로 개입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III. 남한 지역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무덤과 봄

남한 지역 신석기시대 무덤은 주로 동해안지역과 남해안지역 바닷가에 분포한다(표3). 묘제로는 토광묘가 주로 쓰였고, 그 외 동굴묘, 옹관묘, 집석묘가 보고되었다. 장법으로는 매장, 화장, 세골장, 매장 자세로는 신전장, 굴장, 부신장, 피장자 수로는 단독묘, 합장묘, 집단묘가 확인되었다. 출토품으로는 토기, 석기(석부, 석창, 숫돌, 갈돌, 낚싯바늘, 작살, 어망추), 골각기와 같은 도구류, 관옥, 결상이식(귀걸이), 경식(펜던트), 조개팔찌, 발찌와 같은 장신구류가 주를 이룬다. 인골이 토기, 돌, 또는 장대형석부로 덮여 있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성별이나 연령 확인이 가능한 인골의 성비는 여성 35구, 남성 34구로 비슷하고 연령대는 성년(20~39세)이 가장 많다. 무덤의 입지, 시설, 규모, 부장품의 질과 양에서 유적 내 다른 무덤과 확연히 구분되는 무덤이 일부 유적에서 관찰되나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특정한 편중 현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은 복합수렵채집사회(complex hunter-gatherer societies)에서의 획득적 지위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된다.¹¹

10 M. Bloch, & J. Parry (eds.), *Death and the Regeneration of Lif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11 김범철, 앞의 논문(2017); 임상택, 「한반도 신석기시대 복합수렵채집 사회 성격 시론」, 『한국신석기연구』 30(2015), 27~62쪽.

신석기시대 죽은 이의 몸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다.¹² 제주 삼화지구 유적에서는 화장골이 토기편 및 석기편과 함께 널리 산골되었고 (그림1¹³), 그에 비해 진주 상촌리유적 14호 주거지 바닥에 놓인 저부투공토 기에서는 화장한 성인의 인골편이 보고되었다. 통영 욕지도 집석묘와 여수 안도폐총에서는 남성과 여성 합장, 통영 연대도유적의 폐총 내 토광묘에서는 숙년 여성의 인골과 함께 10개월 된 신생아 인골이 발견되었다. 부산 범방유적의 폐총 내 토광묘에는 다리가 'X' 형태로 꼬인 인골이 놓여 있었다. 춘천 교동 동굴묘에서는 신전장된 인골 3개체가 각각의 발이 중앙에서 모이도록 방사상으로 배치되었다(그림2-좌¹⁴). 울진 후포리유적에서는 산 꼭대기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덩이에 세골장된 최소 40개체 이상의 인골이 구덩이 아래에서부터 층을 이루며 매장되어 있었다(그림2-우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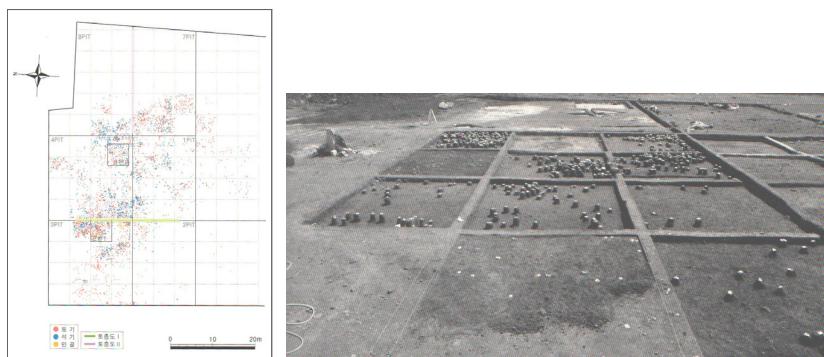


그림1-제주 삼화지구 유적 D Pit 화장골 분포도(좌)와 사진(우)

12 임상택, 앞의 논문(2019); 임학종, 앞의 논문(2008).

13 동양문화연구원, 『제주 삼화지구유적: 제구 삼화지구 가-2지역(2차)내 유적』(2011), 100~101쪽.

14 김원룡, 「춘천교동 혈거유적과 유물: 교동문화의 성격과 연대」, 『역사학보』 20(1963), 4쪽.

15 국립경주박물관, 『울진후포리유적』(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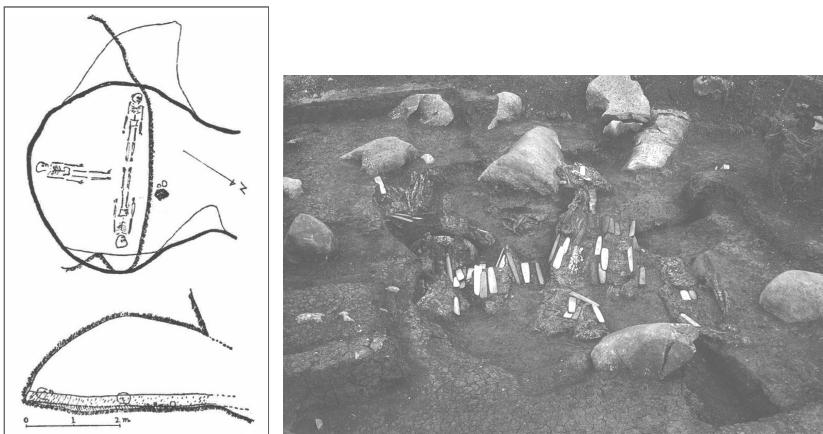


그림2-춘천 교동 동굴묘(좌)와 울진 후포리유적 집단묘(우)

이처럼 다양한 시신 처리 방식이 관찰되는 신석기시대와 비교하여 청동기시대 시신 처리 방식은 상대적으로 표준화되었다(표4). 인골이 조사 보고된 청동기시대 전·중기 무덤의 묘제는 크게 지석묘, 석관묘, 토광묘, 옹관묘로 구분되고, 장법으로는 매장, 화장, 세골장, 매장 자세로는 신전장과 굴장이 확인된다.¹⁶ 대부분 단독묘이나 2인 또는 3인을 함께 묻은 경우도 보고되었다. 성별이나 연령이 확인된 인골 중에는 남성이 23구인데 비해 여성은 6구에 불과하고, 연령대에 있어서는 신석기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년이 가장 많다. 출토품으로는 동검, 석검, 석촉의 무기류와 무문토기, 적색마연토기의 토기류가 주로 보고되고, 그 외 석부, 석착, 석도, 방추차, 옥이 발견되기도 한다. 주요 출토품인 무기류와 토기류 중 토기류는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편중 현상을 보이지 않지만, 검이나 촉은 여성의 무덤(2/6기) 보다 남성의 무덤(16/20기)에서 높은 출토율을 나타낸다.

위와 같은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무덤과 피장자 차이에 대해

16 신석원, 앞의 논문(2015).

김종일¹⁷의 견해는 거시적인 수준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신석기시대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팔찌, 남성에게는 석부를 통한 개인의 젠더 정체성 표현이 허용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청동기시대가 되면서 농경의 발달에 따른 노동 분화와 함께 집단 내 공동체성이 강조되어 개인적 정체성의 표현은 그러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 신석기시대 죽은 이의 몸은 지역과 유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볼 때 김종일이 예로 든 통영 연대도유적의 성별에 따른 팔찌와 석부의 차별적 부장은 신석기시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양상이 아니다(그림3¹⁸).¹⁹ 또 청동기시대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왜 일부 남성에게는 검이나 촉을 통한 남성성 표현이 허용되었는지, 왜 하필 검이나 촉인지, 남성성이나 여성성의 표현이 꼭 부장품만을 통해 허용되거나 억압되었는지, 그가 말하는 ‘남성성’이나 ‘여성성’이 구체적으로 어느 차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김종일의 지적처럼 무덤의 의미는 계층성으로 단순 환원될 수 없으므로 계층화에만 주목할 경우 선사시대 물질문화와 경관의 다양한 의미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진다.²⁰ 그러나 경관과의 연계, 의례 수행, 젠더 상연, 기억 가공 등을 통해 개인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재확인해야 할 필요성은 새로운 정보기술 및 전 지구적 생산, 분배, 소비 과정과 관련하여 시공간이 원격화(time-space distanciation)되고 자아정체감이 파편화된

17 김종일, 「한국 선사시대 여성과 여성성」, 『한국고고학보』 78(2011).

18 한국문화연구원, 『부산신항 준설토투기장 사업부지 내 부산 가덕도 장항유적』 (2014), 106쪽.

19 임상택, 앞의 논문(2019), 151~152쪽.

20 김종일, 「경관고고학의 이론적 특징과 적용 가능성」, 『한국고고학보』 58(2006); 김종일, 「“계층 사회와 지배자의 출현”을 넘어서」, 『한국고고학보』 63(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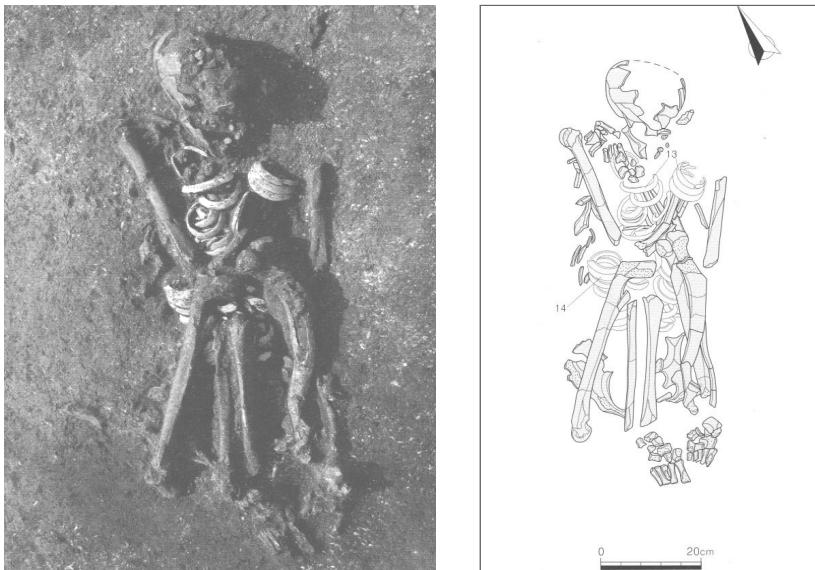


그림3-부산 가덕도 장항유적 6호 남성 인골과 패천

현대사회에서 두드러진 특성일 수 있다.²¹ 따라서 선사시대 무덤과 몸 이해에 있어 개인적 정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역시 현대사회의 특징을 과거에 무비판적으로 투영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사시대 무덤과 몸 연구에 있어 현대적 형태의 개인적 정체성에 대한 일방적 강조는 사회적 위계에 대한 일방적 강조만큼 편파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동기시대 중기 호서지역 송국리형무덤의 상징적 의미를 당시의 정치경제적 맥락과 종합하여 해석한 우정연의 일련의 연구가 주목된다.²² 우정연은 여러 무덤 속성 중 부장품만을 따로 추출하여 독립적

21 E. Castells,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Oxford: Blackwell, 1996); M. A., Dobres, & J. E. Robb, "Agency in Archaeology: Paradigm or Platitude?", M. A. Dobres and J. E. Robb (eds.), *Agency in Archaeology* (New York: Routledge, 2000), p. 13; A. Giddens,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인 변수로 다루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송국리형무덤에 부장된 검과 촉의 상징적 의미를 무문토기와의 공반관계 등을 통해 구분하고 검, 촉, 무문토기가 다른 무덤 속성 및 주거지 등의 생활유구와 결합되는 양상의 거시적 맥락과 미시적 맥락 간 비교를 통해 미시적 또는 국지적 맥락에서의 젠더 정체성이 거시적 또는 지역적 맥락에서의 정치적 위계 재생산에 기여하는 방식을 검토한 바 있다(그림4).²³ 이에 기반하여 우정연은 청동기시대 전-중기 농경이 집약화되는 상황에서 무덤이 일종의 '사회적' 저장 매체로서 행한 역할을 '물리적' 저장 매체로서의 옥외 수혈유구의 구조 및 공간적 분포 양상과 비교, 송국리문화 중심권의 배타적인 사회적 연결망은 형성과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 광역적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그에 비해 송국리문화 중심권 밖의 느슨한 사회적 연결망은 단기적, 국지적 측면에서 보다 개방적이고 융통적으로 작동하지만 장기적, 광역적 측면에서 불안정한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²⁴ 이러한 차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당시 벼농사 중심지인 송국리문화 중심권에서의 배타적인 토지사용 방식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²⁵

우정연이 다룬 청동기시대 중기 호서지역에서는 인골자료가 보고된 무덤이 극히 드물어 위와 같은 무덤의 사회적 의미를 그 피장자를 통해

22 우정연, 「금강중하류 송국리형무덤의 거시적 전통과 미시적 전통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고고학보』 79(2011a); 우정연, 「금강중류 송국리형무덤의 상징구조에 대한 시론적 고찰」, 『호서고고학』 25(2011b); 우정연,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저장전략 비교연구: 물리적·사회적 저장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85(85)(2014a); 우정연,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무덤과 사회적 연결망」, 『제43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발표문』(2019); J. Y. Woo, "Power and Social Change in Korean Middle Bronze Age Mortuary Practice: Burials, Houses, and Context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Archaeology, University of Cambridge (2009).

23 우정연, 위의 논문(2011a, 2011b).

24 우정연, 앞의 논문(2014a, 2019).

25 우정연, 위의 논문(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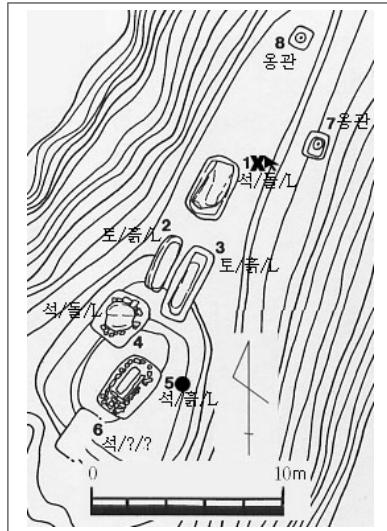


그림4-부여 송국리유적 52지구 분묘군²⁶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는 없다. 한편 인골자료가 검출된 남한지역 신석기 시대-청동기시대 무덤에서는 사자의 온전한 몸이 아니라 그 일부만 매장된 경우가 다수 관찰된다. 이러한 몸의 ‘부분성’에 접근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아래 IV장에서는 최근 유럽고고학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화장과 몸의 가분성에 대해 살펴본다.

IV. 화장과 몸의 가분성

화장은 불을 통한 시신 변형 행위로서 이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여러 차원에 걸친 복합적인 과정이다.²⁷ 이에는 좁게는 시신을 불로 태우는 행위

26 우정연, 앞의 논문(2011a), 47쪽.

자체에서부터 넓게는 화장 준비에서 화장 후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포함될 수도 있다.²⁸ 이러한 과정에서 화장은 인간의 사망 이후 일차적 절차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노출, 살 제거, 임시적 매장 등의 일차적 처리를 거친 후 이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²⁹ 좁은 의미에서든 넓은 의미에서든 화장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신 소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사회적 태도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의미에 대한 집단적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다.³⁰ 이러한 복합적인 과정을 매개한 여러 물적 매체는 표1에서처럼 과거의 화장 행위와 그 이후 현재의 발굴 및 보고가 이루어지기까지 다양한 물리적, 사회적 변수에 의해 양적으로 감소하고 질적으로 변하게 된다.³¹

-
- 27 C. P. Quinn, I. Kuijt, & G. Cooney, "Introduction: Contextualizing Cremations," I. Kuijt, C. Quinn, & G. Cooney (eds.), *Transformation by Fire: The Archaeology of Cremation in Cultural Context* (Tucson, AZ: University of Arizona Press, 2014), p. 5; J. Saipio, "The Emergence of Cremations in Eastern Fennoscandia: Changing Uses of Fire in Ritual Contexts," J. I. Cerezo-Román, A. Wessman, & H. Williams (eds.), *Cremation and the Archaeology of Dea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 204.
- 28 C. P. Quinn et al., *Ibid.* (2014), p. 6.
- 29 L. Goldstein, & K. Meyers, "Transformation and Metaphors: Thoughts on Cremation Practices in the PRE-CONTACT MIDWESTERN United States," I. Kuijt, C. Quinn, & G. Cooney (eds.), *Transformation by Fire: The Archaeology of Cremation in Cultural Context* (Tucson, AZ: University of Arizona Press, 2014), p. 230.
- 30 D. J. Davies, & L. H. Mates (eds.), *Encyclopedia of Cremation* (Aldershot: Ashgate, 2005), p. xvii.
- 31 J. Brück, "Cremation, Gender and Concepts of Self in the British Early Bronze Age," I. Kuijt, C. Quinn, & G. Cooney (eds.), *Transformation by Fire: The Archaeology of Cremation in Cultural Context* (Tucson, AZ: University of Arizona Press, 2014); J. I. Cerezo-Román, & H. Williams, "Future Directions for the Archaeology of Cremation," I. Kuijt, C. Quinn, & G. Cooney (eds.), *Transformation by Fire: The Archaeology of Cremation in Cultural Context* (Tucson, AZ: University of Arizona Press, 2014); C. Fowler, *op. cit.* (2004); C. Fowler, "Identities in Transformation," L. Nilsson Stutz, & S. Tarlow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Archaeology of Death and Buri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 Harvig, "Land of the Cremated

표1-화장묘 형성 과정에서부터 보고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과정	요인	
퇴적 과정	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시점과 장소 및 이유(예: 질병, 전쟁, 불화) 사망자의 연령과 성별, 사회적 관계 및 위치
	사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신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화장 부분일 경우 화장된 부위
	자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이 이루어진 장소와 계절 및 그때의 날씨 특히 바람의 세기와 속도
	물리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 온도와 화장이 지속된 시간 땔감의 종류와 양 화장 후 화장골 수습을 시작하기까지 경과한 시간³²
	수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골만의 선별적 수습 또는 기타 화장 잔존물과의 혼합적 수습 여부 참여 인원 투자된 시간과 정성
	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 후 수습을 전체 또는 부분 무덤에 매장 부분 매장일 경우 나머지 수습을 처리 방식 (예: 생자들 간 분여, 템퍼로 사용, 무덤 외의 구조물이나 장소에 묻음)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양의 산성도 후대의 토지 이용 방식
현재	조사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용 자원 및 기술 관계자의 인식 및 속련도

Dead: On Cremation Practices in Late Bronze Age and Early Iron Age Scandinavia," J. I. Cerezo-Román, A. Wessman, & H. Williams (eds.), *Cremation and the Archaeology of Dea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A. G. Jones, "Cremation and the Use of Fire in Mesolithic Mortuary Practices in North-West Europe," J. I. Cerezo-Román, A. Wessman, & H. Williams (eds.), *Cremation and the Archaeology of Dea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J. I. McKinley, "Bronze Age 'Barrows', Funerary Rites and Rituals of Cremation," *Proceedings of the Prehistoric Society*, Vol. 63(1997).

³² 화장골은 열기가 많이 남아 있을수록 부서지기 쉽고 식을수록 단단해진다. L. Harvig, *op. cit.* (2017), p. 233.

표1에서와 같은 변수가 개입되는 화장과 화장묘는 기능적, 실용적 차원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위생적이었을 수 있고³³, 생활 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망했을 시 화장이 시신의 장거리 이동에 보다 효과적 이었을 수 있다.³⁴ 겨울에 언 땅을 파기 어려울 때 또는 매장의례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매장을 늦추어야 할 경우, 화장해 화장골을 보관했다가 나중에 물리적 또는 재정적으로 가능해졌을 때 매장했을 수도 있다.³⁵ 또 전쟁이나 집단 내 불화와 같이 폭력적인 상황에서의 죽음에 수반된 적의 주술이나 그로 인한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을 했을 수도 있다.³⁶

하대룡³⁷도 일부 소개한 것처럼, 화장묘에서 발견된 화장골의 양적 차이는 시신 처리 방식 및 그와 관련된 여러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³⁸ 그에 따르면 화장인골 판별 기준으로 잘 알려진 U자형 균열³⁹뿐만 아니라 화장 당시 사체의 상태, 화장 온도, 습골 여부 등도

33 국립문화재연구소(편), 『한국고고학전문사전: 고분편』(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1396쪽.

34 A. G. Jones, *op. cit.* (2017), pp. 44-45; K. Rebay-Salisbury, "Rediscovering the Body: Cremation and Inhumation in Early Iron Age Central Europe," J. I. Cerezo-Román, A. Wessman, & H. Williams (eds.), *Cremation and the Archaeology of Dea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p. 56-57; J. Saipio, *op. cit.* (2017), p. 225.

35 송만영, 「청동기시대 무덤과 장제의 변화」, 『한국상고사학보』 101(101)(2018), 29쪽; 윤호필, 「경기도지역 지석묘의 장송의례」, 『인문논총』 30(2012).

36 C. J. Hanlon, "Papago Funeral Customs," *Kiva*, Vol. 37, No. 2(1972), p. 106; R. Underhill, *Social Organization of the Papago Indi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9), p. 190; J. I. Cerezo-Román & H. Williams, *op. cit.* (2014), p. 253에서 인용.

37 하대룡, 앞의 논문(2012).

38 I. Kuijt, C. Quinn, & G. Cooney (eds.), *op. cit.*(2014).

39 J. I. McKinley, & J. M. Bond, "Cremated Bone," D. R. Brothwell, & A. M. Pollard (eds.), *Handbook of Archaeological Sciences* (Chichester: John Wiley & Sons, 2001), pp. 281-292.

화장인골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⁴⁰ 보다 구체적으로 화력은 크게 화장 시간과 온도, 산소공급량에 의해 결정되며⁴¹, 이는 장작의 양과 상태, 화장 유구의 형태, 화장 당일의 날씨 등 여러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또 성인 1명을 완전히 화장했을 때는 1.0~3.6킬로그램 정도의 잔존물이 남기 때문에⁴², 화장골의 무게 측정을 통해 습골 여부와 함께 매장된 시신의 개체 수를 파악할 수 있고, 아울러 두개골과 주요 장골의 잔존 여부를 통해서도 습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화장묘 중에서도 검출된 화장골 양이 특히 적은 경우는 '토큰(token)' 무덤으로 칭해지기도 한다.⁴³ 물론 이는 후퇴적 과정에서의 여러 변수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맥킨리의 견해처럼 생전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사망자의 화장골 수습 시 들인 시간과 정성의 부족 때문일 수도 있다.⁴⁴ 이에 대해 브뤼크는 영국 청동기시대 화장묘에서는 대개 화장골의 일부만 검출 되는데, 그중에는 화장골 수습이나 후퇴적 과정에서의 변수로 다 설명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강조한다.⁴⁵ 대표적으로 영국 중부의 더비셔주 이글스톤 플랫 유적에서는 화장골 보존이 잘 된 무덤 14기에서 검출된 화장골의 평균 무게가 385.1그램에 불과하여⁴⁶, 토양의 산성도나 기타 후퇴적 과정에서

40 하대룡, 앞의 논문(2012), 390~391쪽.

41 P. Holck, "Cremated Bones: A Medical-Anthropological Study of Archaeological Material on Cremation Burials," *Anthropologiske skrifter* Nr. 1, Oslo: Anatomisk institutt – Universitetet i Oslo(1986).

42 J. I. McKinley, "Bone Fragment Size and Weights of Bone from Modern British Crem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of Archaeological Crem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Osteoarchaeology*, Vol. 3(1993), pp. 283-287.

43 J. I. McKinley, *op. cit.* (1997).

44 J. I. McKinley, *op. cit.* (1993); J. I. McKinley, *op. cit.* (1997).

45 J. Brück, *op. cit.* (2014). pp. 126-127.

46 J. I. McKinley, "Cremation Burials, in J. Barrett, Excavations of a Bronze Age Unenclosed Cemetery, Cairns and Field Boundaries at Eaglestone Flat, Curbar, Derbyshire, 1984, 1989-90," *Proceedings of the Prehistoric Society*, Vol. 60(1994), p. 339.

발생할 수 있는 변수 이외의 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다른 예로 브뤼크는 웨일스의 더베드 주에 있는 라닐러 유적에서는 화장골이 토기에 잘 담겨 매장된 화장묘에서 (상대적으로 보존이 잘되는) 두개골과 장골이 확인되지 않고 또 검출된 화장골의 무게가 토기를 통한 보호 없이 매장된 무덤에서의 화장골 무게보다 훨씬 가벼운 점을 든다. 사망자의 생전 사회적 지위가 화장골 수습에 투자된 시간 및 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브뤼크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반박한다. 그에 따르면 검출된 화장골의 양이 유달리 적은 무덤 중에는 래넉셔주 스토니번 팜 유적 3호 돌무덤(cairn)에서처럼 작은 팔뼈나 다리뼈와 같이 수습하기 까다로운 뼈가 포함된 경우도 있고, 옥스포드셔주 배로우 힐스 유적 16호 토분묘 (barrow)에 매장된 성인 여성의 화장골은 무게는 545그램에 불과하지만 동시기 부의 상징물로 여겨진 청동 송곳, 단도, 구슬 목걸이와 함께 매장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예를 통해 브뤼크는 화장묘에서 검출된 화장골의 ‘부분적’ 성격은 화장골 수습 과정이나 후퇴적 과정에서의 변수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음을 보였다.

이러한 매장유구 화장골의 ‘부분적’ 성격을 보다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브뤼크는 영국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널리 발견되는 유물의 ‘파편화 (fragmentation)’ 현상에 주목한다.⁴⁷ 한 예로, 영국 서식스주 잇포드 힐 유적 청동기시대 중기 공동 화장 묘지에서 발견된 토기 중 하나는 그 구연부와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는데, 이 공동묘지에서 약 90미터 떨어진 동시기 취락에서 그 구연부 일부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영국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에서는 화장되지 않은 인골편, 특히 두개골편이 종종 발견되는데, 이러한 인골편은 장소의 경계를 구획하기 위한 퇴적 관행에

⁴⁷ J. Brück, *op. cit.* (2014), pp. 128-129.

동원된 것으로 본다. 브뤼크는 이처럼 유물 파편이나 화장되지 않은 인골편이 매장지를 벗어나 여러 보관, 배분, 또는 순환 과정에 동원되었을 때, 화장골도 그러한 과정의 일부를 이루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더 나아가 브뤼크는 부러진 청동기를 녹여 새로운 청동기를 만드는 것처럼 파편화, 뒤섞음, 융합 과정 등을 거친, 열을 통한 변형은 식량 생산 및 토기 제작과 같은 생성적(generative) 과정의 핵심적 요소였고, 화장 관행도 금속 가공, 토기 제작 등과 같이 원래 물질의 성질 변화 과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생성적 과정의 일부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해석한다.⁴⁸

이러한 화장골의 ‘부분성’과 관련하여 최근 우정연의 남한 지역 청동기시대 화장묘 연구가 주목된다.⁴⁹ 그에 따르면,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에는 화장묘 A형식에서와 같이 매장주체부 내 온전한 시신 화장과 화장된 원위치 매장이 이루어지다가 이후 B형식~D형식이 유행한 시기에는 매장주체부 이외의 여러 곳에서 화장이 행해졌고 화장 후에도 화장골과 화장흔을 가지고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표2, 그림5). 그렇다면 신석기시대 부산 가덕도 장항유적 3호, 5호, 8호, 15호, 16호, 30호, 39호, 41호, 44호, 45호, 47호, 통영 연대도유적 2호-B, 통영 옥지도유적 1호 인골의 두개골이 발견되지 않은 점, 청동기시대 진주 대평리 옥방7지구 가-17호 석관묘의 단수된 여성 인골, 사천 본촌리유적 가2호 석관묘 30대 여성의 복상발치, 창녕 사창리유적 12호 석관묘에서 두개골이나 사지골 전혀 없이 다수의 치아가 날개로 흘어져 발견된 점, 영월 연당 동굴 합장묘

48 J. Brück, *Personifying Prehistory: Relational Ontologies in Bronze Age Britain and Irel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pp. 101-102.

49 우정연,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화장묘 형식 재검토」, 『한국고고학보』 125(2022).

표2-우정연 화장묘 형식 분류안⁵⁰

형식	구분
A형식: 석관이나 토광 내 피열흔 검출	A형: 피열흔+골편(+목탄 등) (A)형: 피열흔(+목탄 등)
B형식: 화장수혈 위 매장주체부형 구조물 설치	B-f형: 화장수혈 안에서 피열흔+골편(+목탄 등) (B)-f형: 화장수혈 안에서 피열흔(+목탄 등) B형: 화장수혈 안에서 골편(+목탄 등) (B)형: 화장수혈 안에서 목탄 등
C형식: 화장수혈 옆 매장주체부형 구조물 설치	C1형: 화장수혈 상부 부석 시설 C1-f형: 화장수혈 안에서 피열흔+골편(+목탄 등) (C1)-f형: 화장수혈 안에서 피열흔(+목탄 등) C1형: 화장수혈 안에서 골편(+목탄 등) C2형: 화장수혈 상부 위석과 개석 시설 C2-f형: 화장수혈 안에서 피열흔+골편(+목탄 등) C2형: 화장수혈 안에서 골편(+목탄 등)
D형식: 석관이나 토광 안에서 피열흔 없이 골편이나 목탄 등 검출	D형: 골편(+목탄 등) (D)형: 목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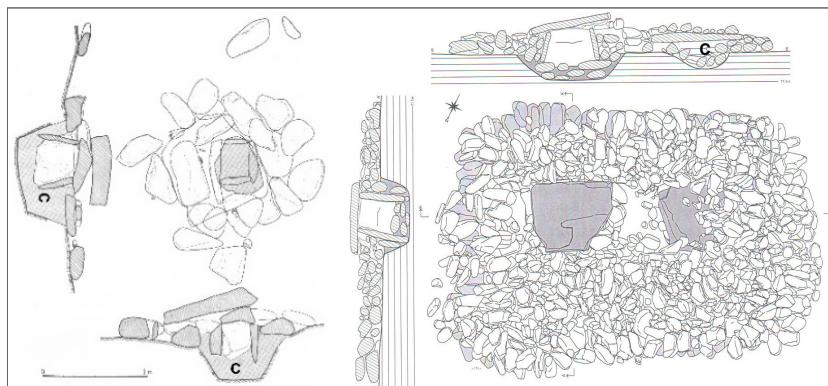


그림5-화장묘 B형식(좌: 춘천 중도유적(중비) I호 고인돌⁵¹)과 C형식(우: 춘천 중도동유적 A1-32호 지석묘^{52,53})

50 위의 논문.

인골 중 머리뼈 조각 3점이 목단지 안에서 따로 나온 점, 경주 천군동유적 5호 주거지와 석장동유적 화장수혈에서 검출된 복수 개체의 화장골 중 어느 개체는 두개골을 포함한 전신이 남아 있는 반면 다른 개체는 두개골이 없거나 극히 일부만 확인된 점, 보은 부수리유적 1호 석관묘에 성인의 뼈와 소아의 뼈가 혼재되어 있는 점 등도 단순한 보존상의 이유나 '의례적' 이유를 넘어 몸의 가분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V. 나가며

20세기 말까지 한국의 고고학 현장에서 발견된 인골자료 분석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의 유존물 등과 함께 그에 대한 분석 기술을 지닌 '자연'과학자에게 전담되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는 발굴보고서에서 무덤이나 주거지와 같은 유구, 토기나 석기와 같은 유물처럼 고고학 현장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물질자료에 대한 보고 내용 뒤에 부록으로 실렸다. 한국고고학에서 과거의 물질자료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과 물질'문화'적 해석 사이의 간극 그리고 그에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골자료의 자연과학적 분석에 필요한 기술과 그 분석 결과를 과거 물질문화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가 양성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한 상황을 지나 2010년대 이후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무덤 출토 인골자료의 자연과학적 분석 결과를 물질문화적 맥락과 종합하여 당시의

51 국립중앙박물관, 『중도』(1983).

52 춘천 중도동유적 연합발굴조사단, 『춘천 중도동유적 II』(2020), 312쪽.

53 도면에서 'C'는 cremated remains, 즉 화장 잔존물이 검출된 부분을 나타낸다.

사람과 사회를 실증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시도에서도 피장자의 사회적 위계나 개인적 정체성에서 출발하는 기존의 접근 방식이 무비판적으로 적용되어 당시의 무덤과 몸 처리 방식의 다양성 이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본고에서는 근현대 서구적인 개인성을 인간의 본질적인 성격으로 상정하는 접근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화장이나 매장 행위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전후의 시신 처리 관행에도 주목한 유럽고고학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였다. 다음 이를 참조하여 남한지역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사회에서도 사람의 몸이 가분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고가 과거 무덤과 몸이 피장자의 사회적 위계나 개인적 정체성의 지표를 넘어 지녔을 수 있는 다양한 의미 탐색을 위한 연구 시야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부록1-신석기시대 인골과 무덤 출토품

유적	무덤/인골	성별	연령	출토품	출전
제주 삼화지구	D2·3pit 화장골				동양문물 연구원 (2011)
부산 범방파총	분묘		약년(11~12세 전후)	사슴건갑골, 연옥제경식	부산직할시립 박물관 (1993)
여수 안도파총	1호/1호	여성	성년(20대)		국립광주 박물관 (2009)
	1호/2호	남성	성년(30대)	패천	
	2호/3호	남성	성년(30대)		
	3호/4호	여성	숙년(50대)	패천	
	4호/5호	남성	노년(60대 이상)		
춘천 교동	인골1				김원룡 (1963)
	인골2				
	인골3				
울진 후포리	40개체 이상 세골장	남성 8인, 여성 9인	소아(10대 이전), 약년(10대) 3인, 성년 17인 (20대 14인, 30대 3인), 숙년(40대)	석부(장대형), 소형석봉, 석제수식, 관옥	국립경주 박물관 (1991)
부산 가덕도 장항	1호	여성	숙년(40대)	토기, 패천	한국문물 연구원 (2014)
	2호	남성	숙년(40대)	토기	
	3호			토기	
	4호		유아(5세 전후)	토기	
	5호	여성	노년		
	6호	남성	숙년(40대)	패천	
	7호	여성	성년(20대)	토기, 옥제경식	
	8호	남성	성년(30대)	토기, 패천	
	9호	남성	숙년(40대)	토기, 흑요석	
	10호		유아(5세 이하)	토기	
	11호	남성		토기	
	12호		유아(3세 전후)		
	13호	여성	성년(20대)		
	14호	여성	노년	패천	

유적	무덤/인골	성별	연령	출토품	출전
	15호	남성		토기	
	16호	여성	성년(30대)	토기	
	17호	여성	소아(10세 이하)	토기, 불명석기	
	18호			토기	
	19호	남성	성년(30대)		
	20호	여성	숙년(40대)	토기, 불명석기, 고래늑골	
	21호	여성	성년(30대)	토기, 불명석기(석봉? 지석?)	
	22호		영아(1세 전후)	토기	
	23호	남성	숙년(40대)		
	24호		유아(5세 전후)		
	25호		유아(3세 전후)	토기, 패천	
	26호				
	27호	남성	성년(30대)	토기	
	28호	여성	숙년(40대)	토기	
	29호	여성		토기, 석부	
	30호	여성		토기	
	31호		성년(30대)	토기	
	32호		소아(7~8세)	토기	
	33호	여성	성년(20대)	석부, 흑요석, 옥제경식	
	34호	남성	숙년(40대)	토기	
	35호	남성	성년(30대)	토기, 적색안료	
	36호		유아(3세 전후)	토기, 작살펜던트	
	37호	여성	성년(30대)	토기	
	38호	남성	숙년(50대)		
	39호				
	40호	남성	숙년(50대)	토기	
	41호		유아(4세 전후)	적색안료	
	42호	여성	성년(20대)	상어이빨경식	
	43호		숙년(50대) 이상	토기	
	44호			토기	
	45호	여성		토기	
	46호	남성	숙년(50대)	사슴뼈경식	
	47호				

유적	무덤/인골	성별	연령	출토품	출전
통영 연대도	48호	남성	노년(60대)	골각기	국립진주 박물관 (1993)
	1호	남성	성년(30대)	토기, 석기류	
	2호/A	여성?	숙년(40대)	파천	
	2호/B		영아(신생아)	흑요석, 상어이빨, 패천	
	2호/C				
	4호	남성	성년(30대)	토기, 석기류	
	5호	여성	성년(30대)	토기, 흑요석, 이음낚시바늘	
	7호	남성	성년(30대)	토기, 석부, 숫돌, 발찌(돌고래, 수달, 너구리 이빨)	
	8호		성년(30대)	토기	
	9호	남성	숙년(40대)	토기, 불명석기	
	10호	남성	성년(30대)	토기, 불명석기	
	11호	남성	성년(30대)	토기, 불명석기, 흑요석, 골각기	
	12호	여성	숙년(40대)	토기, 이음낚시바늘	
	13호	여성?	성년(30대)?		
	14호	여성?	성년(30대)	토기, 불명석기, 흑요석, 골각기, 팔찌(관옥)	
	15호	여성?	성년(30대)	토기, 불명석기	
진주 상촌리	J1·K1 구역		유아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1), 심봉근 (1998)
	단애부 북측 채집				
통영 옥지도	14호 주거지 옹관1 화장골				국립진주 박물관 (1989)
	14호 주거지 옹관2 화장골				
	1호	남성	성년(30대)		
통영 산등파총	2호/1호	남성	숙년(40대)		부산수산대학 박물관 (1989)
	2호/2호	여성	성년(20대)		
		여성	약년(13~15세)	파천	

부록2- 청동기시대 인골과 무덤 출토품

유적	매장무덤 ⁵⁴	화장(관련)		인골		출토품	출전
		무덤(유구)	형식	성별	연령		
안산 선부동	가-2-④호	(B)					명지대학교 박물관(1991)
화성 동화리	1호	A				석촉	기호문화재 연구원(2008)
안성 만정리	3호	D	여성	성년 (20~30대)			경기문화재 연구원(2009)
	4호	B-f					
평택 토진리	1호	C1?	남성			석검, 석촉	기전문화재 연구원(2006)
	1호 적석유구	C1?					
평택 수월 암리	3-2호	(B)				석도, 방추차, 무문토기	
	3-3호	(B)					
	3-4호	(D)					
	3-5호	D					
	3-6호	(D)					
	3-7호	(B)				석검, 석촉	
	3-8호	(B)					
	3-10호	(D)				유구석부	
	3-11호	(B)					
	3-12호	B					
	3-13호	(D)					
	3-14호	(B)					
	3-15호	(B)					
	3-16호	(B)					
	3-17호	(D)					
	3-18호	B					
	3-19호	D					
	3-20호	(D)					
	3-21호	(D)					
	4-1호	(B)					
	4-3호	(B)					

54 무덤이나 인골에서 화장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무덤을 지칭한다.

유적	매장무덤	화장(관련)		인골		출토품	출전
		무덤(유구)	형식	성별	연령		
춘천 발산리		5호	D			석검, 석총	강원문화재 연구소(2004)
춘천 중도 (중박)		I호	B		소아 (7~8세)	석총, 무문토기	국립중앙 박물관(1983)
춘천 중도 (강박)		고인돌	D			대패날, 무문토기, 마연토기	강원대학교 박물관(1984)
춘천 중도동	A1-4호						
	A1-11호	C2-f				석총, 편인석부	
	A1-15호	(A)					
	A1-18호	C2-f				무문토기, 마연토기	
	A1-19호	B-f					
	A1-21호	C2				무문토기, 마연토기	
	A1-22호	C2-f				방주차	
	A1-23호	C1-f					
	A1-24호	C1-f				합인석부	
	A1-30호	A					
	A1-32호	C2				마연토기, 어망추	
	A2-1호	C1-f					
	B1-9호						
	B4-1호	(C1)-f					
	B4-3호						
D2· 3-5호	C1-7호	C1					
	C1-11호	C1				합인석부	
	C1-17호						
	C2-1호	C2-f				주형석도, 석제방주차	
	C2-8호	C1-f					
	C2-11호	B-f					
	C2-14호	C1-f					
	H1-1호	(A)				석총	
	H1-2호	(A)				석총, 관옥	

춘천중도동
유적 연합
발굴조사단
(2020)

유적	매장무덤	화장(관련)		인골		출토품	출전
		무덤(유구)	형식	성별	연령		
		순환구역 7호	불명			무문토기, 마연토기, 편인석부, 석도, 미완성석기 등	
광주 역동		1호	A			비파형동검, 이형동기, 석촉, 구슬	한국문화유산 연구원(2012)
양평 상자 포리		4호	A			석검, 석촉, 무문토기	이화여자대학교 (1974)
평창 하리	2호			여성	성년(20대)	비파형동검, 석촉, 환옥, 관옥, 마연토기	한국문화재재단 (2018)
	(3호)	(인접: 골편+ 목단)				석검, 석촉, 무문토기, 마연토기	
영월 연당	2굴 청동기 시대 무덤				소아 1인+ 성인 2인	석검, 석촉, 격지, 석제방주자, 무문토기, 마연토기, 골각기, 멧돼지 송곳니(장신구? 도구?), 패천, 돼지뼈 등	연세대학교 박물관(2009)
제천 황석리 (중박)	13호			남성		석검	국립중앙박물관 (1967)
제천 황석리 B	총6호			남성	성년 (20세 전후)	사슴뼈, 달팽이	충북대학교 박물관(1984)
	총7호			남성	성년 (30세 전후)	곡옥, 관옥, 소과의 뼈	
	총17호			남성	성년 (30세 전후)	석검, 미완성석부, 무문토기, 돼지이빨	
제천 양평리 D	1호				성년 (18~35세)	대팻날	서울대학교 (1984)
보은 부수리	1호				소아 1인+ 성인 1인	석촉, 마연토기	중앙문화재 연구원(2004)
보령 평리리	2~2호	(D)				무문토기, 마연토기	충북대학교 박물관(1996)
	2~3호	(D)				석검, 석도, 마연토기	
	2~4호	(D)				무문토기, 마연토기	
	2~6호	(D)				무문토기, 마연토기	

유적	매장무덤	화장(관련)		인골		출토품	출전
		무덤(유구)	형식	성별	연령		
진안 삼락리 구곡A		2-7호	(D)			무문토기, 마연토기, 삼각형석도, 유리구슬	국립전주박물관 (2002)
		2-8호	(D)			마연토기	
		2-9호	(D)			무문토기, 마연토기	
		3-2호	(D)			마연토기	
		3-3호	(D)			무문토기	
		3-4호	(A)			유경식석검	
		3-5호	(A)			마연토기(?)	
		3-6호	(A)			마연토기	
		3-7호	(D)			무문토기, 마연토기	
나주 랑동		A-1-1호	D			무문토기, 석검, 석족, 흙돌, 미완성석기, 토제구슬	전남문화재 연구원(2006)
		A-1-2호	D			무문토기, 마연토기	
		A-2-2호				무문토기	
		A-5-3호	D			무문토기, 석족, 흙돌(?)	
장흥 갈두리II		1호	D	남성	숙년 (40대 이상)	석검, 무문토기	호남문화재 연구원(2006)
		10호	(D)			석족, 무문토기	
대구 신서동		48호	D	남성	숙년 (40대 이상)	석족, 석제방추자, 재가공석도, 미완성석부, 마연토기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2012)
		B-4-1호					
		B-5-1호	(A)				
		B-5-4호	(B)-f				
		B-5-5호	(B)-f				
		B-5-6호	(B)-f				
		B-5-7호	(B)-f				
대구 매호동		B-5-8호	(A)				영남대학교 박물관(1999)
	I-1호				성년 (20세 전후)		
달성 진천동	3B호			여성	성년 (20세 전후)		강인구 (1980)

유적	매장무덤	화장(관련)		인골		출토품	출전
		무덤(유구)	형식	성별	연령		
달성 평촌리	1호				약년 (12~18세)		
	3호			남성	성년 (30~34세)	석검, 석촉	
	7호				약년 (12~18세)		
	11호				숙년 (45~55세)	석촉	
	12호			남성	성년 (20~24세)	석검, 합인석부	
	13호			남성	성년 (25~29세)	석검, 저형석도	
	15호				성년 (25~29세)		
	16호			남성	숙년 (45~55세)	석검, 석촉	
	17호			남성	성년 (30~34세)	석검, 석촉	
	20호			남성	성년 (30~34세)	석검, 석촉	
	21호				숙년 (50세 이상)	곡옥, 환옥	
	22호			남성	성년 (30~34세)		
	25호			남성	약년 (12~18세)	석검, 석촉, 무문토기	
	27호			남성	숙년 (35~45세)	석촉	
	28호			남성	성년 (30~34세)	석검, 석촉	
창녕 사창리	10호 (세골장)				성년 (17세 이상)	석검	우리문화재 연구원 (2009a)
	12호				성년 (17~29세)	무문토기	

유적	매장무덤	화장(관련)		인골		출토품	출전
		무덤(유구)	형식	성별	연령		
진주 대평리 어은1	4호				유아 (5세 전후)	(미보고)	김재현(2002), 이상길(1999)
진주 대평리 옥방4	4호			남성	노년 (60세 이상)		동의대학교 박물관(2008)
	5호				숙년 (40~50대)	석검, 석축, 마연토기	
	6호				성년(20대)	(미보고)	
	13호				성년(20대)	(미보고)	
	26호			남성	노년 (60세 이상)	석검	
진주 대평리 옥방5	A-1호			여성	노년 (60세 이상)		선문대학교 (2001)
진주 대평리 옥방7	가-17호			여성		마연토기	김재현(2002), 정의도(1999)
	가-19호				미성년	마연토기, 관옥, 곡옥	
진주 종천리	III-1호			남성	숙년 (40~49세)	석검	우리문화재 연구원(2009b)
진주 가호동	1호묘					석검, 청동천	동서문물연구원 (2011)
		6호묘	(A)			석축, 관옥, 반원옥	
	7호묘						
	9호묘					관옥, 환옥	
	11호묘					석검, 불명석기	
	15호묘						
	17호묘						
	18호묘					관옥	
	19호묘						
	20호묘					관옥	
	25호묘					석검	
	27호묘					석축	
		29호	(A)				
	36호묘					석도	

유적	매장무덤	화장(관련)		인골		출토품	출전
		무덤(유구)	형식	성별	연령		
사천	가1호					석검, 석촉, 마연토기	경상대학교 박물관(2011)
	가2호			여성	성년(30대)	석검, 석촉	
마산 진동	묘역자석묘 K호				성년 (30세 전후)	석검, 석촉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8)
	석관묘 15호				소아 (8세 전후)	석촉	
김해 내동	제3호				숙년	무문토기, 마연토기, 꼬막조개껍질, 굴껍질	동의대학교 박물관(2003)
경주 덕천리		1호	A			석검, 석촉, 마연토기	영남문화재 연구원(2008)
경주 석장동		화장묘	기타		성인 3인		계림문화재 연구원(2012)
경주 천군동		I-5호 주거지	가옥장	남성 1인 + 불명 1인	성년 1인 + 노년 1인	무문토기, 마연토기, 석촉, 석도, 합인석부, 주상편인석부, 갈돌, 갈판, 자석, 미완성석기, 박편	성림문화재 연구원(2010)
포항 호동		29호 주거지	가옥장	남성 2인	성년 2인 (20대 1인, 30대 1인)	무문토기, 석착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2008)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강원대학교박물관, 『중도 고인돌 발굴조사보고』. 1984.
- 강원문화재연구소, 『강원지역 지석묘군 발굴조사 보고서』. 2004.
- 겨레문화유산연구원, 『평택 수월암리 유적』. 2013.
- 경기문화재연구원, 『안성 만정리 신기유적』. 2009.
- 경상대학교박물관, 『사천 본촌리유적』. 2011.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포항 호동유적 II』. 2008.
- _____ . 『달성 평촌리·예현리 유적』. 2010.
- 계림문화재연구원, 『경주지역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I』. 2012.
- 국립경주박물관, 『울진후포리유적』. 1991.
- 국립광주박물관, 『안도폐총: 여수금오도~안도간 연도교 건설구간 내 유적』. 2009.
- 국립전주박물관,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III』. 2001.
-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지석묘연구』. 1967.
- _____ . 『중도』. 1983.
- 국립진주박물관, 『욕지도』. 1989.
- _____ . 『연태도I』. 1993.
- 기전문화재연구원, 『평택 토진리 유적』. 2006.
- 기호문화재연구원, 『화성 동화리 유적』. 2008.
- 동서문물연구원, 『진주 가호동유적』. 2011.
- 동아대학교박물관, 『진주 상촌리 선사유적』. 2001.
- 동양문물연구원, 『제주 삼화지구유적: 제구 삼화지구 가-2지역(2차)내 유적』. 2011.
- 동의대학교박물관, 『진주 대평리 옥방4지구 선사유적 I』. 2008.
- 명지대학교 박물관, 『안산 선부동 지석묘 발굴조사보고서』. 1991.
- 부산수산대학박물관, 『산등폐총』. 1989.
- 부산직할시립박물관, 『범방폐총I』. 1993.
- 서울대학교, 『제원 양평리D지구 유적발굴조사 보고』.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종합보고서 고고·고분분야 I』, 청주: 충북대학교박물관, 1984.
- 선문대학교, 『진주 대평리 옥방 5지구 선사유적』. 2001.

- 성립문화재연구원, 『경주 천군동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2010.
- 연세대학교박물관, 『영월 연당 피난굴(쌍굴) 유적』. 2009.
- 영남대학교박물관, 『시지의 문화유적 I』. 1999.
- 영남문화재연구원, 『경주 덕천리유적 I』. 2008.
- 우리문화재연구원, 『창녕 사창리 유적』. 2009a.
- _____, 『진주 중천리 유적』. 2009b.
- 이화여자대학교, 「양평군 상자포리 지석묘 발굴보고」. 『팔당·소양댐수몰지구유적발굴 종합조사보고』. 서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 전남문화재연구원, 『나주 랑동유적』. 2006.
- 정의도, 「진주 대평리 옥방7지구 선사유적」, 『남강선사문화세미나요지』. 1999.
- 중앙문화재연구원, 『보은 부수리고분군』. 2004.
- 춘천 중도동유적 연합발굴조사단, 『춘천 중도동유적 I~VI』. 2020.
- 충북대학교박물관, 「제원 황석리B지구 유적발굴조사 보고」. 『충주댐 수몰지구문화유적발굴조사종합보고서 고고·고분분야 I』, 1984.
- _____, 『평라리 선사유적』. 1996.
- 한국문물연구원, 『부산신항 준설토투기장 사업부지 내 부산 가덕도 장항유적』. 2014.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대구 신서동 유적』. 2012.
- 한국문화재재단,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V: 강원 2』. 2018.
- 한일문화유산연구원, 『광주 역동유적』. 2012.
- 호남문화재연구원, 『장흥 갈두유적 II』. 2006.

2. 단행본

- 국립문화재연구소(편), 『한국고고학전문사전: 고분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 김재현, 「인골로 본 남강 대평사람들」, 국립진주박물관(편), 『청동기시대의 대평·대평인』. 진주: 국립진주박물관, 2002.
- 배진성, 『무문토기문화의 성립과 계층사회』. 서울: 서경문화사, 2007.
- 이형원,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서울: 서경문화사, 2009.
- Bloch, M., & J. Parry (eds.), *Death and the Regeneration of Lif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Brück, J., "Cremation, Gender and Concepts of Self in the British Early Bronze Age," I. Kuijt, C. Quinn, & G. Cooney (eds.), *Transformation by Fire: The Archaeology of Cremation in Cultural Context*. Tucson, AZ: University of Arizona Press, 2014, pp. 119-139.
- _____, *Personifying Prehistory: Relational Ontologies in Bronze Age Britain and Irel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 Castells, E.,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Oxford: Blackwell, 1996.
- Cerezo-Román, J. I., & Williams, H., "Future Directions for the Archaeology of Cremation," I. Kuijt, C. Quinn, & G. Cooney (eds.), *Transformation by Fire: The Archaeology of Cremation in Cultural Context*. Tucson, AZ: University of Arizona Press, 2014, pp. 240-255.
- Davies, D. J., & L. H. Mates (eds.), *Encyclopedia of Cremation*. Aldershot: Ashgate, 2005.
- Dobres, M. A., & Robb, J. E., "Agency in Archaeology: Paradigm or Platitude?" M. A. Dobres, & J. E. Robb (eds.), *Agency in Archaeology*. New York: Routledge, 2000, pp. 3-17.
- Fowler, C., "Identities in Transformation," L. Nilsson Stutz, & S. Tarlow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Archaeology of Death and Buri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online publication)
- _____, *The Archaeology of Personhood: An Anthropological Approach*. London: Routledge, 2004.
- Giddens, A.,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 Goldstein, L., & Meyers, K., "Transformation and Metaphors: Thoughts on Cremation Practices in the PRE-CONTACT MIDWESTERN United States," I. Kuijt, C. Quinn, & G. Cooney (eds.), *Transformation by Fire: The Archaeology of Cremation in Cultural Context*. Tucson, AZ: University of Arizona Press, 2014, pp. 207-232.
- Harvig, L., "Land of the Cremated Dead: On Cremation Practices in Late Bronze Age and Early Iron Age Scandinavia," J. I. Cerezo-Román, A. Wessman, & H. Williams (eds.), *Cremation and the Archaeology of Dea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p. 231-249.

- Hodder, I., *Archaeology Beyond Dialogue*.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2003.
- Jones, A. G., "Cremation and the Use of Fire in Mesolithic Mortuary Practices in North-West Europe," J. I. Cerezo-Román, A. Wessman, & H. Williams (eds.), *Cremation and the Archaeology of Dea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p. 27-51.
- Kuijt, I., Quinn, C. P., & and Cooney, G. (eds.), *Transformation by Fire: The Archaeology of Cremation in Cultural Context*. Tucson, AZ: University of Arizona Press, 2014.
- McKinley, J. I., & Bond, J. M., "Cremated Bone," D. R. Brothwell, & A. M. Pollard (eds.), *Handbook of Archaeological Sciences*. Chichester: John Wiley & Sons, 2001, pp. 281-292.
- Morris, B., *Anthropology of the Self: the Individual in Cultural Perspective*. London: Pluto Press, 1994.
- _____, *Western Conceptions of the Individual*. Oxford: Berg, 1991.
- Quinn, C. P., Kuijt, I., & Cooney, G., "Introduction: Contextualizing Cremations," I. Kuijt, C. Quinn, & G. Cooney (eds.), *Transformation by Fire: The Archaeology of Cremation in Cultural Context*. Tucson, AZ: University of Arizona Press, 2014, pp. 3-21.
- Rebay-Salisbury, K., "Rediscovering the Body: Cremation and Inhumation in Early Iron Age Central Europe," J. I. Cerezo-Román, A. Wessman, & H. Williams (eds.), *Cremation and the Archaeology of Dea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p. 52-71.
- Saipio, J., "The Emergence of Cremations in Eastern Fennoscandia: Changing Uses of Fire in Ritual Contexts," J. I. Cerezo-Román, A. Wessman, & H. Williams (eds.), *Cremation and the Archaeology of Dea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p. 201-230.
- Thomas, J., *Archaeology and Modernity*. New York: Routledge, 2004.
- Underhill, R., *Social Organization of the Papago Indi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9.

3. 논문

- 강인구, 「달성 진천동의 지석묘: 복식석관과 굴신장의 신례」. 『한국사연구』 28, 1980, 39~65쪽.
- 김범철, 「가덕도(장항)유적의 사회적 생물고고학: 신석기시대 매장관행에 대한 통합적 이해 시론」. 『한국신석기연구』 34, 2017, 35~64쪽.
- 김병모, 「한국 거석문화 원류에 관한 연구 I」. 『한국고고학보』 10~11, 1981, 55~78쪽.
- 김원룡, 「춘천교동 혈거유적과 유물: 교동문화의 성격과 연대」. 『역사학보』 20, 1963, 1~27쪽.
- 김정희, 「동북아시아 지석묘의 연구」. 『승실사학』 5, 1988, 95~154쪽.
- 김종일, 「경관고고학의 이론적 특징과 적용 가능성」. 『한국고고학보』 58, 2006, 110~145쪽.
- _____, 「“계층 사회와 지배자의 출현”을 넘어서」. 『한국고고학보』 63, 2007, 150~175쪽.
- _____, 「한국 선사시대 여성과 여성성」. 『한국고고학보』 78, 2011, 5~28쪽.
- 김주희, 「신석기시대 출토 인골로 보는 사회상」. 『한국신석기연구』 37, 2019, 41~72쪽.
- 송만영, 「청동기시대 무덤과 장제의 변화」. 『한국상고사학보』 101(101), 2018, 5~33쪽.
- 신석원, 「인골로 본 청동기시대 묘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심봉근, 「진주상촌리유적 출토 신석기시대 옹관」. 『문물연구』 2, 1998, 9~24쪽.
- 우정연, 「금강중하류 송국리형무덤의 거시적 전통과 미시적 전통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고고학보』 79, 2011a, 39~66쪽.
- _____, 「금강중류 송국리형무덤의 상징구조에 대한 시론적 고찰」. 『호서고고학』 25, 2011b, 30~65쪽.
- _____,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저장전략 비교연구: 물리적·사회적 저장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85, 2014a, 105~134쪽.
- _____,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무덤을 통해 본 개인성과 집단성」. 『한국학』 37(4), 2014b, 343~390쪽.
- _____,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무덤과 사회적 연결망」. 『제43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발표문』, 2019.
- _____,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화장묘 형식 재검토」. 『한국고고학보』 125, 2022, 761~791쪽.

- 윤호필, 「경기도지역 지석묘의 장송의례」. 『인문논총』 30, 2012, 363~398쪽.
- 이상균, 「한반도 신석기인의 묘제와 사후세계관」. 『고문화』 56, 2000, 3~27쪽.
- 이상길, 「진주 대평 어온1지구 발굴조사 개요」. 『동아대학교박물관 주관 남강선사 문화세미나요지』, 1999.
- 임상택, 「한반도 신석기시대 복합수렵채집 사회 성격 시론」. 『한국신석기연구』 30, 2015, 27~62쪽.
- _____, 「무덤으로 본 신석기시대 어로민의 해양경관 구축」. 『고고학지』 25, 2019, 139~163쪽.
- 임학종, 「신석기시대의 무덤」. 『한국신석기연구』 15, 2008, 65~115쪽.
- 하대룡, 「인골 분석을 통한 장례 방식의 검토」. 『제3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발표문』, 2012.
- Hanlon, C. J., "Papago Funeral Customs." *Kiva*, Vol. 37, No. 2, 1972, pp. 104-113.
- Holck, P., "Cremated Bones: A Medical-Anthropological Study of Archaeological Material on Cremation Burials." *Anthropologiske skrifter* Nr. 1, Oslo: Anatomisk institutt – Universitetet i Oslo, 1986.
- McKinley, J. I., "Bone Fragment Size and Weights of Bone from Modern British Crem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of Archaeological Crem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Osteoarchaeology*, Vol. 3, 1993, pp. 283-287.
- _____, "Cremation Burials, in J. Barrett, Excavations of a Bronze Age Unenclosed Cemetery, Cairns and Field Boundaries at Eaglestone Flat, Curbar, Derbyshire, 1984, 1989-90." *Proceedings of the Prehistoric Society*, Vol. 60, 1994, pp. 335-340.
- _____, "Bronze Age 'Barrows', Funerary Rites and Rituals of Cremation," *Proceedings of the Prehistoric Society*, Vol. 63, 1997, pp. 129-145.
- Woo, J. Y., "Power and Social Change in Korean Middle Bronze Age Mortuary Practice: Burials, Houses, and Context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Archaeology, University of Cambridge, 2009.

국문초록

남한 지역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무덤 출토 인골자료의 증가와 함께 2010년대 이후 한국고고학에서도 인골자료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 결과와 관련 물질문화에 대한 해석을 종합하여 당시의 사람과 사회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사회적 위계 또는 정체성에서 출발하는 기준의 접근 방식으로는 무덤과 몸 처리 방식에서 관찰되는 다양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이에 화장이나 매장 행위 자체뿐만이 아니라 화장이나 매장 전후의 시신 처리 관행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가 이루어진 유럽고고학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현대적인 형태의 불-가분적인(individual) 개인 대신 가분적이고(individual) 관계적인(relational) 존재로서의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투고일 2023. 9. 7.

심사일 2023. 10. 4.

제재 확정일 2023. 11. 9.

주제어(keywords) 무덤(burials), 몸(bodies), 개인(individual), 가분성(individuality)

Abstract

Dividuality of South Korean Neolithic to Bronze Age Bodies
Woo, Jungyoun

A growing body of skeletal evidence from South Korean Neolithic to Bronze Age burials has stimulated more empirical approaches to studies have South Korean prehistoric people and societies. However, existing they posit fundamental limitations in understanding different cultures and people as the “in-dividual” as an essential building block of societies across time and spac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a view of prehistoric people as dividual and relational beings is suggested by referring to comparable European cases.

